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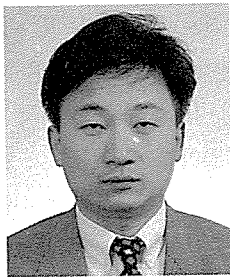
인터넷은 온라인 흥등가 전략 위기 이점살려 21C 정보화사회 대비해야

위험수위 오른 포르노 정보

지난 7월은 적어도 인터넷 피플들에겐 잔인한 달이었다. “인텔리라면 인터넷은 기본아니냐”며 은근히 엘리트계급임을 과시하던 인터넷 피플들이 줄지에 피핑톰(Peeping Tom : 관음증환자)로 코너에 몰리게 된 것이다. 미국의 보수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은 7월3일자 커버사진으로 인터넷에서 포르노를 본 뒤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어린이의 얼굴을 실으면서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위험성을 대서특필했다.

이어 타임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뉴스위크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포르노정보가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경고하며 ‘인터넷=포르노천국’이라는 등식을 세웠다. 9월 들어서는 인터넷은 정보의 보고가 아니라 온라인 흥등가(Red Light District)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로이터 통신기사가 전세계로 타전됐다.

‘네트워크중의 네트워크’, ‘뉴비즈니스의 인큐베이터’, ‘정보의 보고’ 등 역사에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수사어구를 달고 있던 인터넷이 신종 포르노 전도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李 圭 昌
(한국일보 뉴미디어부 기자)

쓴 채 천길 낙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보수언론이라는 백만 원군을 등에 업은 반인터넷주의자들은 마치 중세의 마녀사냥을 연상시키는 인터넷 죽이기에 나섰다.

지난 6월 미 상원은 네브라스카주 출신의 제임스 액슨의원의 발의로 제기된 미 전기통신법 수정안을 찬성 84에 반대 16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중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조항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상용 온라인 서비스, 사설 전자게시판(BBS)을 통해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포르노를 유통시키는 사람은 10만달러의 벌금과 2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게 되어 있다. 또 이 법은 최초로 음란물을 제조한 사람뿐 아니라 단순히 음란물을 중개한 사람도 같은 처

벌을 받게 되어있으며 포르노 소설이나 지나치게 성적인 표현도 제재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미 정부와는 별도로 IBM, 마이크로소프트, AT&T, MCI, 타임워너, 아메리칸온라인, 넷스케이프, 애플 등 민간 기업들도 「음란정보차단 정보통신협력기구(PICS)」를 결성, 인터넷의 음란정보 검열을 위한 소프트웨어 표준안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음란정도에 따라 인터넷의 멀티미디어 정보에 등급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미국뿐만 아니다.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모든 나라에서 인터넷의 음란물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 심지어 중동지역의 회교 국가들은 학교나 연구소, 학술단체마저도 아예 인터넷을 접속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서 인터넷 음란물의 비율과 음란의 정도 그리고 그 폐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이 난리통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서점에서 팬트하우스, 허슬러, 하우스와이프 등 포르노 잡지를 판매하고 있고 거리 거리마다 쳐다보기 망측한 섹스숍들이 즐비한 미국에서조차 그 야단 법석을 피우는

것을 보면 모르긴 몰라도 대단한 수준(?)임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라. 인터넷의 각종 서비스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인 야후(yahoo)에 접속해 「SEX」라는 단어를 입력해 보자. 플레이보이, 허슬러 등 익히 알려진 성인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동화상 사진 문자 등이 제공되는 인터넷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외에도 무려 4백50개의 포르노 관련 정보서비스 업체가 등장한다.

타임지는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의 경우 가장 야한(?) 사진이 남녀의 전신 누드 정도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웃어 넘길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문제는 인터넷의 「유스넷」 서비스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 토론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유스넷서비스에는 3천여개의 토론실(일명 뉴스그룹)이 개설돼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 토론실에 자신의 의견을 전자메일 형태로 게시하거나 이 토론실을 통해 각종 파일을 주고 받는다. 문제의 주인공들은 이 토론실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무정부주의자들이다. 이들이 주고 받는 음란파일은 상상을 초월한다. 제임스 엑스 상원 의원은 “케이, 레스비언들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수간(獸姦) 어린이 누드 등의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면 부모입장에선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미 일리노이주의 가정주부 보니 펠씨는 거센 항의를 무릅쓰고 3명의 아들에게 인터넷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우리 애들이 X등급의 포르노에게 폭격을 당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또 뉴욕에 거주하는

주부 린다씨도 10살난 아들인 앤디의 인터넷 개인 사서함에 포르노를 전송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전자메일과 포르노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증언한다.

18개월동안 인터넷의 음란물을 조사한 카네기 멜론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에는 91만7천4백건의 음란 사진, 묘사, 동화상 등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유스넷에 있는 그림중 83.5%가 음란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의 5개의 인터넷 사실게시판(BBS)서비스들은 매월 10달러~30달러의 사용료를 받고 비밀리에 음란물을 제공함으로써 매년 1백만달러의 짝퉁 수입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이용료 월 10~30달러 수준

인터넷에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고 이것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터넷의 감초처럼 음란물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빠른 시간에 인터넷이 전세계를 하나로 엮는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역설적인 주장도 전혀 거짓말은 아니다. 단 한번만 키보드를 조작하면 수많은 데이터를 복제해 전 세계 어디에나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의 마력때문에 인터넷의 음란물은 마약에 버금가는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

특히 회교, 유교국가 등 성개방에 극도로 엄격한 국가에서의 문화 충격은 체제붕괴를 가져오는 보이지 않는 핵탄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목을 베기위해 당장 개작두를 대령하라고 호통치기 전에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고 혹시 미심쩍은

대목이 있는지 둘러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을 한번도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분들의 경우엔 더욱 이런 기회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일단 통계수치부터 따져보자. 앞서 말한 카네기 멜론대학의 조사보고서는 인터넷의 포르노 사진이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스넷 전체 데이터중 단지 3%만이 포르노사진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유스넷을 이용하는 시간은 전체 인터넷 사용시간중 11.5%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인터넷 절대 다수의 데이터는 음란물이 아니라 정치, 종교, 경제, 문화, 기술 등에 대한 죄없는 정보란 뜻이다.

디렉토리서비스인 야후에 「SEX」를 입력해 4백50개의 음란 정보공급자를 발견할 수 있다면 「BUSINESS」라는 단어를 입력할 경우 수천개에 달하는 정보제공자가 등장한다. 타임 역시 “인터넷이야말로 21세기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기관차”라며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 옹호론자들은 “사회 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능력이 없는 기득권층들이 인터넷을 회색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의 음란물은 인터넷이나 온라인 서비스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에 유통중인 포르노 정보의 대부분은 기존 종이매체에 있는 음란물을 디지털 정보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잡지나 신문 등 페이퍼 미디어에 있는 음란물을 스캐너로 읽어들여 컴퓨터에서 가공한 뒤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다. 실제 사회에서 음란물의 생산-분배-유통 채널이 버티고 있는 한 인터넷과 같은 가상사회에서도 음란물의 확

대 재생산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음란물의 생산 및 유통은 사회 자체의 문제이지 결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반론의 요지이다.

인터넷은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역동적인 사회현상이다. 1969년 인터넷의 전신 알파넷이 등장한지 불과 26년만에 인터넷은 북한 등 몇몇 오지를 제외하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냈다.

마셜 맥루한이 말한 진정한 지구촌(GLOBAL VILLAGE)이 인터넷을 통해 완성된 것이다. 현재 전 세계의 5천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단순한 사회현상을 뛰어넘어 21세기의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등 모든 사회 활동을 규정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美 MIT대 미디어연구소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교수는 "2천5년에는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컴퓨터황제 빌 게이츠는 "인터넷은 도스(DOS) 이후 두번째로 컴퓨터의 가장 강력한 표준이 됐다"고 말했다.

이제 인터넷에 개작두를 안길 것인지 아니면 무죄방면을 선고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인터넷에는 분명히 상당량의 음란물이 존재하고 국내에서도 쉽게 이 상품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없지는 않다. 그렇다면 우리도 민관이 협동하고 각종 사회단체와 자식키우는 부모들까지 일체해 쫓아내 반인터넷 전선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만 할 것인가?

'NO!' 대답은 명백하다. 인터넷의 음란물을 방지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인터넷을 외면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보의 빈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음란정보의 유통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빈부격차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인터넷이 '정보의 보고'라는 말은 결코 허울좋은 빈 말이 아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겹겹이 쌓여 있고 이 정보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아는 국가가 21세기 정보대국이 된다. 국내 인터넷의 대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전길남(全吉男)교수는 "인터넷은 각 나라를 정보대국과 정보빈국으로 양분하는 기준이다. 정보의 빈부격차는 곧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잘라 말한다.

정보대국과 정보빈국 격차

현재 한국통신, 아이네트기술, 한국 PC통신 등 국내 상용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통한 인터넷 사용자는 기껏해야 2만명 수준이다. 교육망이나 연구망 등 비상용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까지 합쳐도 국내 인터넷 사용자는 10만명을 밑돈다. 인터넷 한번 들어가본 적 없는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목청을 돋우지 않도록 인터넷 알리기엔 박차를 가해야 마땅하다. 그 일환으로 최근 전길남교수가 주창하는 세계 인터넷박람회는 인터넷의 저변을 넓히고 정보활용을 대중화하는데 썩 좋은 캠페인이 아닐 수 없다.

내년 한해동안 내내 열릴 세계 인터넷박람회는 인터넷을 통해 각 나라 정부와 단체, 기업들이 저마다 고유한 풍물을 서비스하거나 온라인 거래, 정보 서비스 등 갖가지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 최초의 가상박람회다. 세계 인터넷 박람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멀티캐스팅사의 칼 말라무드는 "인

터넷박람회 개최를 위해 각 주요 거점 국가를 T3(초당 45MBPS:국제 전화 3천회선 해당)급의 인터넷철도를 까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가 미국에 인터넷 철도를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 문제는 유럽과 연결되는 광케이블이다. 일본이 유럽과 케이블을 연결하면 우리는 일본의 그림자가 되고 만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과 네트워크를 연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정보를 장악하는 자가 사회를 주도한다는 미래학자들의 진단은 서서히 들어맞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사회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인터넷의 전자메일은 편지의 폭주를 해결하며 우편제도를 개혁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서비스는 비즈니스맨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한다. 무엇보다 실물경제와 인터넷의 전면적인 결합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기업은 주문량에 따라 적절히 생산량을 결정하며 어떠한 유통 단계도 없이 제품을 주문자에게 배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체제가 완성된다. 이해 득실을 정확히 계산해야 할 시점이다. 인터넷의 포르노 때문에 우리가 잃는 것이 하나라면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것은 수백 수천이다. 무작정 인터넷에 면죄부를 주자는 뜻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과 관련해 가장 걱정해야 할 대목은 인터넷의 음란물이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미루다가 정보 후진국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⑤7